

한국 전통 배자의 복식사적 고찰과 현대화 작업

이 은 형* · 조 효 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Historical Review of Korean Traditional Baeja, and an Exploration of its Modernization

Eun-Hyung Lee* · Hyo-Sook Cho⁺

Instruct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투고일: 2009. 8. 25, 심사(수정)일: 2009. 9. 24, 게재 확정일: 2009. 11. 13)

ABSTRACT

A kind of Korean traditional jacket, Baeja, has been a Korean traditional costume equipped with practicality and formative aesthetic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Joseon Dynasty. Accordingly,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highly valued a modern sense of Baeja with various types of design and forms and attempted to make efforts to apply it into modern life. This study provided a new direction in the modernization work of traditional costumes by creating fashion images newly interpreted corresponding to a modern sense and tre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noticeable elements via the coordination of traditional Baeja and modern costumes. On the one hand, it would be meaningful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activation of traditional Hanbok by providing people with ample opportunities to wear it in modern daily lives variously. On the other hand, the actual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modernization work for traditional costumes by attempting to conduct a crossover that could let people move into other areas freely, that is, a creative and innovative research associating the area of costume history and that of coordination.

Key words: Baeja(배자), modernization(현대화작업), traditional costume(전통의상),
modern costume(현대의상), coordination(코디네이션)

I. 서론

현대 한국인의 한복 착용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통한복은 주로 예복 정도로만 착용되고 있으며, 그나마 20~30대의 젊은 층은 대부분 한복을 착용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 이는 현대 한국인들이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중요한 배경이 민족문화에 대한 무관심이나 민족정체감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한복이 한국 사회의 서구화된 구조와 생활양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¹⁾

한복은 이천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왔으며, 시대와 문화에 맞도록 조금씩 그 형태가 변화되어 왔다. 한복은 크게 저고리류, 치마류, 바지류, 포류, 배자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복식 종류 중 비교적 간단한 품목인 배자 속에는 안정된 비례에서 오는 품격의 멋, 간결한 디자인에서 오는 놀라운 파격의 멋, 모피와 비단, 명주와 모시 같은 전혀 안 어울릴 것만 같은 다양한 소재를 서로 어울리게 디자인한 조화의 멋, 겉감과 안감의 경이로운 천연 배색이 풍기는 자연의 멋 등 현대인을 감격시킬 요소가 너무도 많다.²⁾ 이에 연구자는 배자의 현대적 감각을 매우 높게 평가하며 이를 현대 생활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시도하고자 했다.

전통 복식의 현대화 작업은 크게 전통 복식의 일부분, 즉 디테일, 소재, 디자인 요소를 현대 의상에 적용시키는 방법과 전통복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적용시키는 방법, 그리고 전통의상과 현대의상을 서로 조합하는 방법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가지의 방법 중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세 번째 방법인 전통의상과 현대의상을 서로 조합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시도된 연구결과가 없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처음 시도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 배자와 우리가 착용하는 현대 의상들과의 조합을 통해 배자의 현대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는 특별한 날에만 착용하는 불편한 예복정도로만 여겨져 왔던 한복이 현대의 서구화된 생활양식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나 거부감 없이 착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

시에 이를 통한 과거와 현재 문화의 융합을 시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자와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배자의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둘째, 유물로 남아있는 배자를 발굴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를 참고로 하여 시대별 대표적인 유물사진과 도식화, 상세치수, 소재, 구성방법, 바느질법 등을 정리, 분석하였다. 셋째, 재단법인 아름지기에서 재현한 배자³⁾ 중에서 현대적 감각이 높다고 평가되는 배자를 선택하여 그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선택된 배자 재현작품을 현재의 우리가 착용하는 의상들과 조합하여 다양한 코디네이션을 제시하였다. 배자와의 믹스 앤 매치를 위한 현대의 의상들은 연구 시점의 패션 트렌드에 맞춰 중점으로 선택하였으며, 현 시점의 트렌드 분석을 위해 각종 문헌 및 선행연구, 대중매체 등을 통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배자의 역사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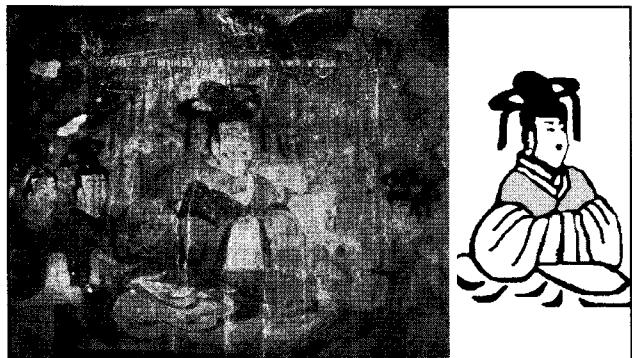
배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⁴⁾ 정확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여밈이 앞 중심에서 만나는 대금형이며 소매가 짧거나 없는 의복을 배자(背子)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배자를 선택하기 위해 넓은 의미에서의 ‘광의의 배자’로 분류하였다. 다시 말해서 앞 중심에서 여며지는 대금형의 의복은 물론, 답호와 같은 직령교임형의 의복도 배자형의 복식으로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1. 삼국시대의 배자

배자형의 복식은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통해 그 형태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삼실총 벽화(그림 1)⁵⁾를 통해 귀족 남자가 유(襦)와 고(袴)위에 배자의 형태를 한 의복을 입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소매가 없고 둔부선 까지 내려오는 길이이며 깃과 밀단에 선장식이 보인다. 황해도 안악군 용순면 유순리에 있는 안악 제3호분의 서측실 남벽의 벽화(그림 2)⁶⁾를 통



〈그림 1〉 삼실총 벽화. 한국문화 콘텐츠 컬렉션고유복식,
<http://cloth1.krpia.co.kr>



〈그림 2〉 안악 제3호분 벽화. 고구려 벽화고분, 1992, p. 41.

해 가장 뚜렷한 배자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벽화에서 여자 주인공은 우임직령의 포(袍)위에, 우임직령에 소매가 없고 진동둘레에 짙은 녹색의 선을 장식한 반비를 착용하였으며, 주변의 시녀들은 우임직령인 자색의 배자형 복식을 착용하였다.

2. 통일신라시대의 배자

태평성대가 계속되어 문화의 황금기에 들어선 통일 신라에서는 복식이 매우 화려해지고 사치스러워졌는데, 이로 인해 해이해진 골품간의 질서와 복식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흥덕왕 9년(834년)에 복식금제(興德王 服飾禁制)⁷⁾가 내려졌다. 이 복식금제에 기록된 반비(半臂)와 배당(褙檔)을 배자의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반비는 당제(唐制)에서 온 것⁸⁾으로 골품계급에만 허용되었다. 당시 신라는 당의 복색(服色)을 수용하였으므로 신라의 반비와 당의 반비가 유사하였다고 보는데, 짧은 소매가 있거나 소매가 없고, 깃이 앞 중심에서 만나는 대금형(對襟形)이며, 양옆이 트인 것이다. 『지봉유설』에서는 “당고조가 소매를 짧게 한 옷을 만들어 반비라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배자이다.”⁹⁾라고 기술하였다. 흥덕왕 복식금제에서의 반비의 기록¹⁰⁾을 살펴보면 진골대등과 진골 여자, 6두품 여자, 5두품 남녀, 4두품 남녀에게 착용이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유희경, 김문자는 ‘배자의 일종으로 반비와 같은 계통이나,

반비와 달리 소매가 없는 것’¹¹⁾이라 하였다. 김동욱은 ‘배당은 배자이니 중국제로서, 당의 반비, 일본 여관(女官)의 복식에 나오는 배자가 그것이다’¹²⁾하여 배당을 소매가 없는 의복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박두이는 ‘배당을 당대의 짧은 소매가 있고 길이가 허리 정도인 반수 ‘반비’와 같은 양식을 지닌 외의’¹³⁾라고 설명했다. 흥덕왕 복식금제에서의 배당의 기록¹⁴⁾을 살펴보면 배당은 여인들만 착용했던 의복으로 평인녀에게는 착용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당의 옷감으로는 금(錦)이나 라(羅), 능(綾)이 주로 사용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라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배당이 당시의 여러 유물 중에 길이가 짧고 소매가 없는 ‘오녀배자’라 부르는 의복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3. 고려시대의 배자

『고려사(高麗史)』 여복지 서문에 “고려 태조는 개국초에 일이 많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라의 구제(舊制)를 그대로 따라 사용하였다”¹⁵⁾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전기에도 통일신라시대의 반비와 배당이 그대로 입혀졌다고 볼 수 있으며, 고려 후기에 와서는 그 명칭이 바뀌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고려시대의 답호와 같은 형태는 후에 조선시대까지도 유지되고 있음을 유물을 통해 볼 수 있다.

배자에 대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사』 여복지에 위장복(衛仗服)으로 자색보상화의(紫色寶祥花衣), 비색보상화의(緋色寶祥花衣), 번색대수의(幡色大袖衣), 보상화대수의(寶祥花大袖衣), 자소수의(紫小袖衣), 자공복(紫公服), 홍배자(紅背子), 녹라한삼(綠羅汗衫), 수말액(繡抹額), 자수포두(紫繡包肚), 금의(錦衣), 자의(紫衣), 청의(青衣) 등을 입었다는 기록¹⁷⁾ 이 있다. 또한 『고려사』 여복지 의위(儀衛) 중 상원 연등회의 위장과 중동 팔관회의 의장으로 군사 20명이 자라관(紫羅冠), 홍배자(紅背子), 녹라한삼(綠羅汗衫), 자수포두(紫繡包肚)를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법가의 의장으로 군사 20명이 자라관(紫羅冠), 비라배자(緋羅背子), 녹라한삼(綠羅汗衫), 자수포두(紫繡包肚)를 착용하였다는 기록¹⁸⁾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두이는 고려군복에 배자(背子)와 포두(包肚)가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각 기능상의 차이는 있지만 배자와 포두 모두 통일신라시대의 반비를 계승한 의복으로 문무관이 착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¹⁹⁾ 즉 고려의 배자는 의식용에 입었으며 한삼이나 의(衣)라고 하는 짧은 포 위에 덧입었을 것이다.

4. 조선시대의 배자

조선시대의 배자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여밈이 앞 중심에서 만나는 대금형의 소매가 짧거나 없는 의복을 배자라고 한다. 조선시대의 배자를 정리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배자를 ‘협의의 배자’와 ‘광의의 배자’로 분류해 보았다. 협의의 배자는 조선 후기의 배자 유물과 같은 짧은 상의의 형태로 소매가 없고 대금형이며 포의 형태가 아닌 상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광의의 배자는 소매가 없거나 짧으며, 그것이 가운데서 만나는 합임이거나 직령교임인 형태이다. 즉 소매가 없고 그것이 합임인 조선후기의 배자와 같은 형태는 물론, 조선 전기의 담호와 같이 소매가 짧고 깃이 교임인 형태, 소매가 없고 깃이 방령인 형태, 방령과 같이 소매가 있고 그것이 방령인 형태, 조선 후기의 담호와 같이 소매가 없고 교임인 형태 등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배자’, 다시 말해서 앞중심

에서 여며지는 일반적인 배자형의 의복은 물론, 직령교임형의 소매가 짧거나 소매가 없는 담호와 같은 의복도 배자형의 복식으로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배자형 복식을 방령(方領), 담호(褡護), 전복(戰服), 패자(掛子), 배자(背子)로 분류하였다.

방령(方領)은 고대 중국에서는 주로 직령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네모난 깃도 방령이라 칭하기도 하여 방령의 의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흥나영은 선행연구²⁰⁾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남자 상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는 ‘방령의’로 명명된바 있는 독특한 양식의 의복을 살펴보고 그 변천과 전개 과정을 알아보았는데, 뒤가 짧고 반수의(半袖衣)인이 의복의 특징적인 형태를 알려주는 명칭으로 ‘후단방령반비’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여밈의 방법은 대금형이 대부분이나 셋이 깊이 여며지는 교임형, 셋이 없는 형, 셋은 달렸지만 앞중심에서 합임을 이루는 형과 깃 모양이 겹친 형인지, 곧게 달린 형인 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였다. 방령의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으나 깃의 모양이 이중이며 네모(方)형이기 때문에 깃의 형태에 따라, 즉 직령과 단령의 예(例)에 따라 ‘방령’이라고도 한다. 방령은 조선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출토된 복식으로 긴 소매가 달린 포(袍)의 형태, 소매가 짧은 상의의 형태, 소매가 없는 배자 형태의 세 가지 유형이 출토되었다. 뒤가 앞보다 짧은 유물이 많은데, 그 이유는 실용적인 기능을 고려해 만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말을 타기에 적합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²¹⁾ 방령은 주로 견이나 화문단과 같은 상등품의 옷감으로 제작되었으며, 겹옷으로 되어 있거나 솜을 넣은 것도 있어 상류층에서 방한 외출용으로 착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16·17세기 출토복식의 직물유형 및 문양에 관한 연구²²⁾에서는 방령이 조선시대의 포류 중에서 무늬가 있는 옷감을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조효숙은 유희준의 『미암일기(眉巖日記)』에 기록된 ‘방의(方衣)’를 방령과 같은 유형의 옷으로 보았다.²³⁾

담호(褡護)는 소매가 짧다는 것 외에는 직령과 거의 같은 형태로 교임으로 여며 입으며, 주로 철릭 위에 착용되었다. 또한 담호 위에 단령을 덧입어서 철릭·담

호·단령이 남자 관복의 일습으로 착용되었다. 답호는 탑호, 탑흘, 더그레라고도 하며 옆트임이 있는 반소매의 포로,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왕과 관리들이 상복의 안에 입거나 혹은 사대부들이 겉옷 위에 덧입었던 옷이다. 답호의 형태는 곧은 깃에 반소매가 팔꿈치에 이르며, 길이는 발목까지 오고 옆트임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소매가 없는 답호가 생겼으며, 순조 이후에는 그 형태가 전복과 같아졌다.²⁴⁾ 또한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는 선비들도 답호를 착용하였으며, 조선시대 말기에는 관리들이 주의 위에 답호를 입어 예복으로 착용하였다.²⁵⁾ 즉, 19세기의 관복제도가 바뀌고 상복이 변화하면서 주의 위에 답호를 착용하였는데, 이때의 답호는 전복과 같이 생긴 의복으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용어의 혼용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더그레와 답호가 같은 의복이라는 것은 『광해군일기』, 『상례언해』²⁶⁾ 등의 문헌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²⁶⁾

쾌자(掛子)는 한정당집(閑靜堂集)에 의하면 “반비라 하는 것은 지금의 쾌자와 비슷하다. 다만 쾌자의 셋이 직수(直垂)한 것이 다르다”고 하였다.²⁷⁾ 정약용은 『아연각비』에서 “쾌자를 쾌자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음이 잘못 옮겨진 것이다. 중국음인 쾌즈(快子)에서 만들어졌다”²⁸⁾라고 하였으며, 최남선은 『조선상식』에서 “후세에 와서 답호를 쾌자라 하여 하급 군속 및 노예의 제복이 되어버렸다”²⁹⁾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조선시대 후기에는 답호, 쾌자, 쾌자, 전복의 명칭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복(戰服)은 조선후기 무관들의 군복의 일습으로 동달이 위에 입는 긴 배자의 형태이며, 깃과 소매가 없는 의복을 호칭한다. 『인조실록』 2년(1624) 1월에 “전복에 쓸 호문단을 장만하게 하므로 신이 가산을 기울여 수십 필을 사서 그의 소원에 부응해주었습니다”라는 기록³⁰⁾에서 전복의 명칭이 처음 보이며, 『영조실록』 52년(1776) 3월 영조재궁의대(英祖梓宮衣櫬)에도 전복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전복 3점, 답호 23점의 기록³¹⁾이 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전복제도는 옛날의 반비의이며 작자(綽子) 또는 답호라고도 한다”³²⁾는 기록이 있어, 처음에는 전복과 답호가 구별된 복장이었던 반면, 후대로 갈수록 그 구분이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종실록』에는 “전복

은 옛날의 반비로서 작자라고도 하고 또 답호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관들도 일찍이 장복(章服) 안에 입었다”하여 전복과 답호의 명칭상의 혼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³³⁾

배자(背子)는 소매가 짧거나 없으며 길이가 짧아 포나 짧은 상의 위에 덧입는 옷이다. 형태는 대금형으로 좌우의 길이 앞중심선에서 만나는 합임이다. 조선 중기의 유물은 방령깃이 달린 배자가 많았으나 후기가 되면서 방령이 사라지고 깃이 달리지 않거나 ‘원삼깃’ 또는 ‘배자깃’이라고 하는 등근 깃이 달린 사례가 많아진다.³⁴⁾ 배자의 앞과 뒤의 길이는 같거나 뒤가 앞보다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 이는 앉아 있을 때 앞이 구겨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배자는 사계절 모두 착용되었으며, 방한용은 배자의 안쪽과 진동, 도련선 둘레에 텁을 대어 따뜻하게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남자 배자에 관해서는 송문흠(1710-1752)의 『한정당집』에 “반비라 하는 것은 지금의 배자와 비슷하지만 배자의 양거(兩裾)가 직수(直垂)인 것이 다르다. 그 반비의 짧은 것은 지금의 배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⁵⁾ 옛날의 반비가 조선시대에는 남자들의 쾌자나 배자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며, 반비에 비해 배자의 길이가 짧아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배자는 왕 이하 양반들이 주로 평상복으로 착용하였으며, 이때 배자는 소매와 셋, 고름이 없고 깃은 좌우 모양이 같으며 겹쳐져 여미는 것이 아니라 마주 닿게 입는 옷으로 어깨는 연결되어 있고 겨드랑이에 긴 끈 혹은 매듭단추 등으로 여미어 겨드랑이 아래부분은 트이도록 하였다. 배자의 형태는 국속화 되어 앞뒷길의 길이 차이가 생기고 전체 길이도 짧아져서 엉덩이 정도와 저고리 길이보다 짧은 것이 있으며, 길이가 짧아진 배자는 도련선이 곡선으로 둥글려지고 또한 동정이 생겼고 가장자리에 파이핑(piping)을 둘렀다. 조선 후기의 풍속화³⁶⁾와 유물 자료를 통해 조선 시대 후기 배자(背子)의 형태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여자 배자의 형태는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가 전혀 다른 형태이다. 조선시대 전기의 배자의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자의 형태와는 다른 소매가 있는 포(코트)의 종류임을 문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조선 전기의 배자에 관한 기록을 통해

상복이 계급에 따라 대수와 배자로 구분되어 있고, 배자는 대와 함께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⁷⁾ 조선 후기의 여성의 배자는 깃이 대금이며 동정이 달려 있다. 그리고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 침에 따라 배자의 길이도 짧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남자 배자에서 보이는 옆트임이 필요 없게 되었다. 배자는 중부이남 지역에서보다 주로 이북 지역에서 많이 착용되었는데, 이는 추운 지방에서 보온을 위해 착용되었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그러나 봄과 가을에 착용하는 겹배자나 여름에 착용하는 깨끼배자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배자가 실용적인 목적뿐만이 아닌 멋을 내기 위한 용도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I. 배자의 유물 분석

배자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바를 토대로 현재까지

〈표 1〉 유물 배자 목록

시대구분	No.	유물명	시기	소장처
삼국시대	1	오녀배자	통일신라시대	일본 정창원
	2	남자무악인의 반비	통일신라시대	일본 정창원
	3	반비	통일신라시대	일본 정창원
	4	반비	통일신라시대	일본 정창원
	5	반비	통일신라시대	일본 정창원
조선전기	6	방령	경주정씨 온(1481~153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7	남성용답호	16세기 초	국립민속박물관
	8	사면교직 겹답호	16세기 초	소수서원유물관
	9	명주 겹답호	16세기 초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0	방령	고령신씨 여관(1503~158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1	답호	나주정씨 응두(1508~157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2	배자	심수륜(1534~1589)	경기도박물관
	13	배자	김화(1572~1633)	경기도박물관
	14	배자	김화(1572~1633)	경기도박물관
	15	화문단 겹방령의	16세기 중반 ~ 17세기 전반	충주박물관
조선후기	16	배자	동래정씨 일가(1574~166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7	무명 겹방령의	17세기 초 추정	충북대학교박물관
	18	답호	전주이씨 변(1636~173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	답호	전주이씨 변(1636~173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	배자	전주이씨 변(1636~173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1	배자	17세기	안동대학교박물관
	22	답호	전주이씨 직(1677~174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3	답호	전주이씨 직(1677~174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4	배자	전주이씨 직(1677~174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5	명주 솜누비배자	17세기 말~18세기 초	고려대학교박물관
	26	배자	전주이씨 의정	단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7	여성용 배자	18세기 초	국립민속박물관
	28	배자	한산이씨(1712~1722)	충북대학교박물관
	29	배자	파평윤씨(1735~175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개화기	30	자색 명주쾌자	18세기 ~ 19세기	국립부여박물관
	31	쌍용문사 겹전복	19세기	고려대학교박물관
	32	답호	19세기	국립민속박물관
	33	사흘전복	19세기	국립민속박물관
	34	전복	19세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5	남성용 전복	19세기	국립민속박물관
	36	배자	고종(1864~190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7	남성용 배자	20세기 초	국립민속박물관
	38	남성용 배자	20세기	국립민속박물관
	39	여성용 텔 배자	20세기	이화여대박물관
	40	여성용 배자	20세기	이화여대박물관
	41	어린이용 배자	20세기	박영숙, 혀동화 소장
	42	어린이용 배자	20세기	박영숙, 혀동화 소장

남아있는 유물 중 배자형 의복에 포함되는 유물 총 42점을 선택하여 시대별로 구분(표 1)하였다. 그중에 현대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배자 유물 6점을 선정하여 유물사진과 도식화, 상세치수와 사용된 소재, 구성방법 및 바느질법 등을 정리하였다.

시대는 삼국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개화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삼국시대의 경우 우리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배자 유물이 없으므로 일본 정창원(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참고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고려시대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배자 유물이 없는 관계로 본 장에서 생략하였다. 유물 명칭은 보고서에 기록에 따랐다.

1. 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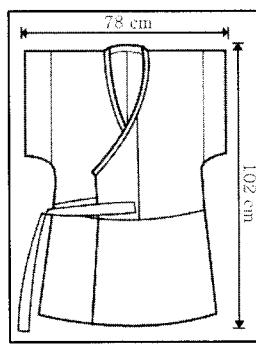
〈그림 3〉은 일본 정창원 남창(南倉)에 소장되어 있는 반비³⁸⁾이며 〈그림 4〉는 그 도식화³⁹⁾이다. 유물의

상세치수는 세로길이 102cm, 가로길이 78 cm이다. 겉감으로는 적색의 시(紺)가 사용되었고 안감에는 황색의 시(紺)가 사용되었다. 하단부분에는 연한 청색의 당화문 협힐 라(羅)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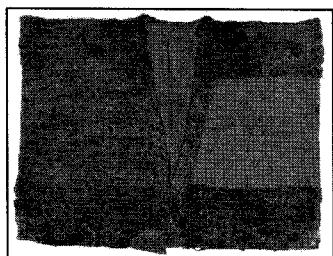
〈그림 5〉는 일본 정창원 남창(南倉)에 소장되어 있는 '오녀배자'⁴⁰⁾이며 〈그림 6〉은 그 도식화⁴¹⁾이다. 유물의 상세치수는 세로길이 43.5cm, 가로길이 52cm로 허리 부근에 오는 길이이다. 직령의 깃이 달려있으며 소매가 없고 안고름이 달려있다. 겉면의 옷감은 적색바탕의 당화문위금(唐花文緯錦)이며 안감으로는 연한 녹색의 시(紺)가 사용되었다. 오른쪽 길 안쪽에 '東大寺 前 吳女六年'이라는 묵서(墨書)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오녀배자'가 여성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록이 남아있다.⁴²⁾ 주성희는 '오녀배자'에 관한 선행 연구⁴³⁾에서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배자의 형태가 '오녀배자' 등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짧은 길이에 소매가 없고 고름을 사용하여 여미는 것으로 보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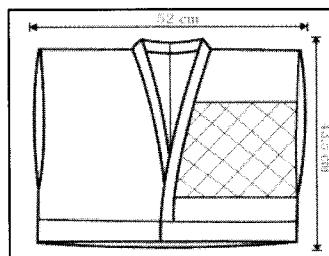
〈그림 3〉 반비. 제40회
正倉院展 도록, 1988, p. 44.



〈그림 4〉 〈그림 3〉의
도식화



〈그림 5〉 오녀배자. 제50회
正倉院展 도록, 1998,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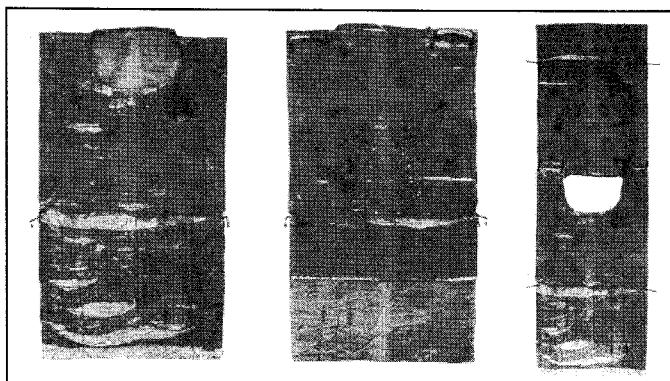
〈그림 6〉 〈그림 5〉의 도식화

일신라시대의 배당도 이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정창원의 반비(半臂)나 배자(背子)에 통일신라시대의 배당과 같은 힙힐(夾纈)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신라의 악인(樂人)이 적의(赤衣)를 입었다는 점으로 보아 '오녀배자'를 통일신라시대의 배당의 형태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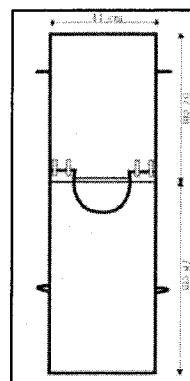
2. 조선전기

〈그림 7〉은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된 심수륜(1534~1589) 묘 출토 복식으로⁴⁴⁾ 〈그림 8〉은 그 도식화⁴⁵⁾이다. 유물의 상세치수는 길이 78cm(앞), 57cm(뒤), 품 41cm으로 겹으로 구성되었다. 전장후 단형의 배자이며, 직사각형 2장으로 되어있다. 어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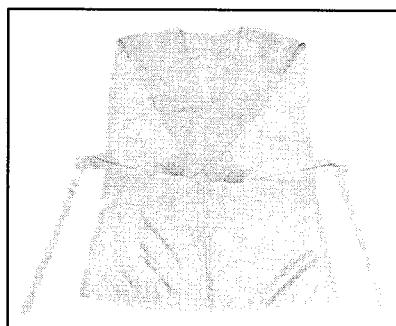
와 겨드랑이 아래에 매듭단추로 어깨솔기와 여밈을 처리하였고, 대襟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여러 번 접어 시신의 머리를 괴는 베개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겉감은 생초, 안감은 세주가 사용되었고, 겉감과 안감 사이에 심감으로 저주지가 들어있으며, 착용을 많이 하였는지 가장자리는 훼손이 심하고 접힌 자리는 옷감이 쪘어져 심감의 저주지가 훤히 드러나 보인다. 어깨의 여밈으로 앞면 양어깨에 매듭단추 1쌍씩, 뒷면에 단추 고리가 달려있다. 앞면은 나비 41cm, 길이 78cm 사각형에서 길이 15cm, 고대 약 20cm정도를 연밸런스하게 U자형의 네크라인으로 만들었고, 뒷면은 나비 41.5cm, 길이 57cm 사각형에서 고대를 1cm 정도 넣어서 1.5cm의 테이프로 감쌌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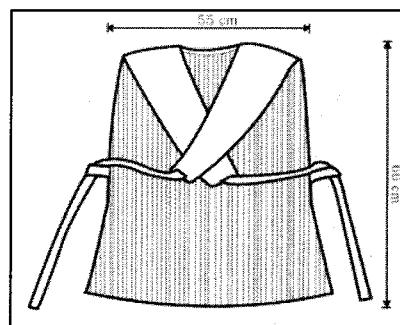
〈그림 7〉 심수륜의 배자. 심수륜 묘 출토복식, 2004, p. 212.



〈그림 8〉 〈그림 7〉의 도식화



〈그림 9〉 전주이씨 변의 배자. 名選 中
민속 · 복식, 2005, p. 147.



〈그림 10〉 〈그림 9〉의 도식화

3. 조선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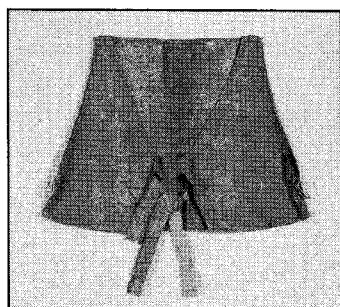
〈그림 9〉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된 전주이씨 변(1636~1731)의 배자⁴⁷⁾로 1981년 6월 경기도 용인에서 출토되었다. 〈그림 10〉은 그 도식화⁴⁸⁾이며, 상세치수는 길이 66cm, 품 55cm이다. 곁감에는 작은 꽃들이 모여 둥근 틀을 이룬 것이 연속적으로 있는 화문주가 사용되었으며, 안감에는 주가 사용된 누비옷이다. 뒷길, 옷고름, 고리가 완벽하게 남아있어 착용 방법을 알 수 있는데, 등에서 어깨로 연결된 줍은 앞길의 끝에 달려있는 끈(옷고름)으로 옆선에 있는 고리를 걸어 앞에서 교차해서 착용한다.⁴⁹⁾

〈그림 11〉은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된 군복용 배자⁵⁰⁾이며, 〈그림 12〉는 그 도식화⁵¹⁾이다. 유물의 상세치수는 길이 32cm, 진동 25cm, 뒷풀 55cm로 푸른색의 면직물로 제작된 동달이의 발침옷이다. 양 옆이 완전히 트여있으며 겨드랑이 밑의 끈이 앞 뒷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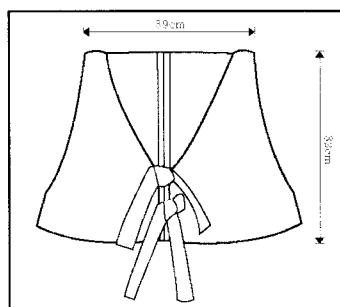
연결하고 있다. 그 끈에 놋 고리가 있어 무엇인가 걸게 되어 있으나, 고리의 자세한 용도는 알 수가 없다. 앞 두 자락은 끈으로 예미는데, 여밈끈은 2쌍으로 되어있다.⁵²⁾

4. 개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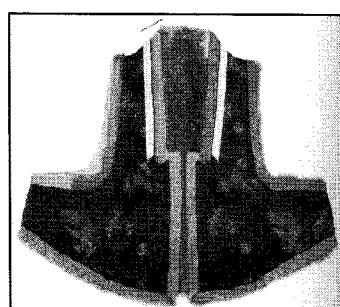
〈그림 13〉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후기 여성용 털 배자⁵³⁾이며, 〈그림 14〉는 그 도식화⁵⁴⁾이다. 유물의 상세치수는 길이 45cm, 품 55cm로 청녹색의 견직물로 제작되었고 토끼털로 선장식이 되어있다. 이러한 배자는 서울의 북쪽이나 평안도 지방에서 널리 입혀졌고, 평상복은 물론 특별한 날 예복으로 착용되었는데, 특히 평안도 지방에서 신부의 결혼 예복으로 착용되었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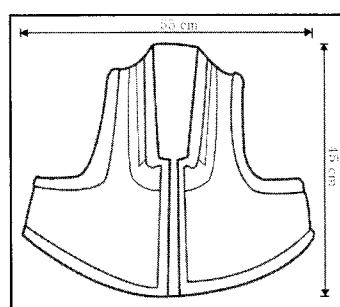
〈그림 11〉 군복용 배자.
服飾類名品圖錄, 1990, p. 59.



〈그림 12〉 〈그림 11〉의 도식화



〈그림 13〉 조선후기 여성용 털 배자. 우리 옷과 장신구, p. 249.



〈그림 14〉 〈그림 13〉의 도식화

IV. 전통 배자의 현대적 활용

1. 기획 의도 및 작업방법

전통 한복도 모델 및 헤어와 메이크업, 액세서리, 장소 및 소품 등과의 창의적인 조합에 따라 현대 의상과 조합하여 얼마든지 완성도 높은 현대적인 패션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통 한복을 고정된 조형미가 아닌 개인의 개성에 따른 헤어 및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과 함께 연출하면 패션 스타일의 완성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현대 우리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 한복과 현대의 의복 및 소품들과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유행 경향과도 맞으면서 실생활에서 응용 가능한 한복의 코디네이션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작업의 기획 의도이다.

즉 전통 배자에 나타난 조형성과 현대 패션의 조합으로 한국적 정체성을 보이면서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된 패션 이미지 연출 사진을 제시해 봄으로써 전통복식의 현대화 작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제작과정은 재단법인 아름지기의 ‘생활 속의 아름다움 - 우리 옷, 배자’ 전시회를 위해 재현된 전통 배자⁵⁶⁾중 현대적 감각이 높이 평가되는 6점의 작품을 선택하여 전통 배자의 현대적 활용을 전제적인 스타일 컨셉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가 일상에서 착용하는 상의와 하의, 기타 장신구 및 소품, 신발 등을 전통 배자와 함께 조합하여 총 6점의 스타일링 작품을 연출 하였다.

전체적인 의상스타일은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분석한 2008년 F/W 트렌드에 따라 미니멀리즘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롱 재킷 스타일, 레이어드 스타일, 가늘고 긴 스타일, 중성적인 스타일로 정했다. 색채는 시즌 트렌드 컬러라고 할 수 있는 블랙, 네이비 등의 클래식한 컬러를 중심으로 전통의 느낌을 헤치지 않으면서도 트렌드에 맞는 현대적인 느낌의 색상을 주로 선택하였다. 소재는 주로 많이 착용하는 면, 실크와 니트, 스판, 광택이 있는 소재 등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액세서리의 경우 전통

의상인 배자의 느낌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였으며, 주로 전통 한복 소품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보통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인 스타일링 논문에서는 헤어와 메이크업 배경 등을 포함하여 작품을 연출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좀 더 전통 배자의 조형미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아이템과 소재, 색상 및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여 제 4장을 구성하였다(표 2).

2. 현대적 활용

1) 사례 I

사례 I에 사용된 배자는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된 16세기 남성의 배자를 재현한 유선희의 작품이다. 상세치수는 길이 68cm, 품 36cm로 전장후단형의 겹배자이며 어깨와 겨드랑이 아래를 매듭단추로 여몄다. 걸감은 모시, 안감은 자미사를 사용하였다.⁵⁷⁾ 앞이 길고 뒤가 짧은 독특한 형태의 흔히 볼 수 없는 유일한 디자인으로, 이 배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본 배자를 선택하게 되었다. 특히 2008년 F/W 시즌에는 복잡한 장식들이 생략된 대신 의상이 이루는 선과 모양으로 승부하는 미니멀리즘 경향이 두드러진 트렌드로 떠올랐는데, 본 배자가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례 I에서는 2008년 F/W 시즌의 미니멀리즘 경향을 나타내고자 했다. 직선적 느낌이 강한 심플한 실루엣을 지닌 훈하지 않은 디자인의 배자와 스커니 진, 어그 부츠 등의 짧은 세대의 아이템과 코디네이션 하여 세련된 미니멀리즘과 짧은 세대의 발랄한 느낌을 동시에 표현하였다(그림 15).

2) 사례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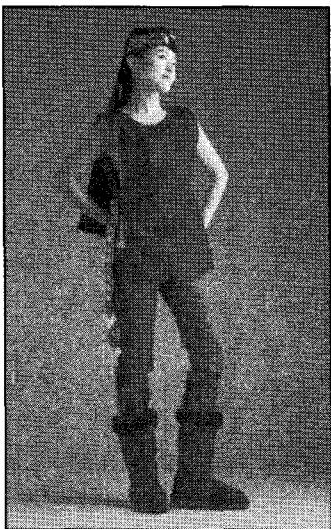
사례 II에 사용된 배자는 이홍순이 재현한 여자 털배자로 상세치수는 길이 37cm, 품 48cm이다. 걸감에는 다흥색 용문단을 사용하고 안에는 양털을 두었으며, 가장자리에는 뺏钱财한 물범 털을 사용하여 선을 둘러 단정하게 정리하였다.⁵⁸⁾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

<표 2> 작품 연출 계획

작품	배자재현작품	컨셉	색체	소재		조합아이템
				배자	조합소재	
I		세련된 미니멀리즘 젊은 세대의 발랄함과 활동성		모시 자미사	면 진 스웨이드	민소매 티셔츠, 스키니진, 아양, 어그 부츠, 땡기
II		클래식 룩 운근한 섹시미		용화분단 물범털	시폰 울 가죽	터틀넥 티셔츠, 베기팬츠, 중절모, 레이스업 부츠, 귀주머니, 귀걸이
III		롱 재킷 스타일 동화적 느낌의 신비스러운 스타일		산등실크 얇은비단	코듀로이 털	레깅스, 앵클부츠, 비녀, 귀걸이
IV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레이어드 스타일		모시	너트 면	롱 니트, 플리츠 스커트, 레깅스, 플랫슈즈, 족두리
V		가늘고 긴 미니멀리즘 스타일 에스닉하고 쉬크한 스타일		자카드	시폰 면, 실크 혼방 가죽 코르크	터틀넥 티셔츠, 와이드 팬츠, 웨지힐, 비녀
VI		소년과 여성의 이미지 블랙과 블루컬러의 조합		면	면 레이스 시폰 에나멜	타이트 티셔츠, 롱스커트, 스트랩 샌들, 사(纏)

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개화기 배자의 형태로, 짧은 길이에 자연스럽고 우아한 곡선의 미가 강조된 디자인이다. 또한 다흥색의 화려한 컬러와 무늬가 있는 소재가 사용되었고 텁 트리밍 장식으로 인해 배자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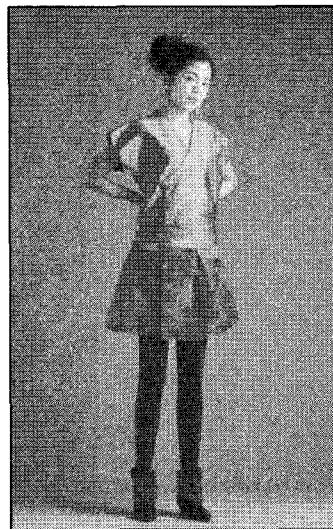
체만으로도 장식적인 요소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F/W 시즌에는 클래식한 룩이 하나의 트렌드 인데,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드러내는 슬림하면서도 심플한 스타일을 강조하고, 노출은 없으나 몸에 적당



〈그림 15〉 사례 Ⅰ



〈그림 16〉 사례 Ⅱ



〈그림 17〉 사례 Ⅲ

히 피트되면서 여성스러운 라인을 보여주어 절제되어 있는 은근한 섹시미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사례 Ⅱ에서는 2008년 F/W 시즌에 두드러지게 유행하는 클래식 룩을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 우아한 곡선의 미가 강조된 짧은 길이의 텔매자와 호피무늬 패턴의 티셔츠, 그리고 또 다른 유행 아이템인 배기 팬츠와 중절모를 코디네이션 하였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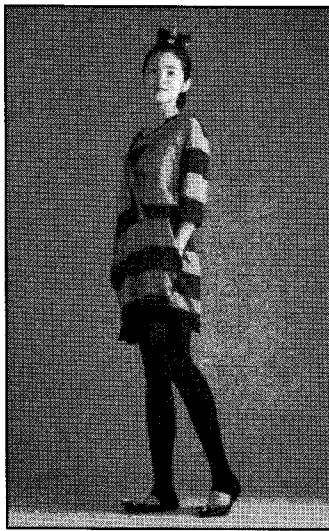
3) 사례 Ⅲ

사례 Ⅲ에 사용된 배자는 통일신라시대의 남자 반비를 재현한 이홍순의 작품으로 길이는 84cm, 폼은 47cm이다. 앞에서 여며 입을 수 있도록 허리에 긴 끈을 달았으며 짧은 소매를 달았다. 상의의 옷감은 치밀한 산동실크(Silk Shantung)로 하고 허리선 아래에는 무늬가 나염된 라(羅) 느낌을 주는 짧은 비단으로 연결하였다.⁵⁹⁾ 이 배자는 앞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길이가 84cm정도로 긴 편이며, 허리선 아래로는 다른 소재가 사용된 독특한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길이가 긴 재킷 혹은 셔츠와 같은 스타일로 여성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례 Ⅲ에서는 2008년 F/W 시즌에 유행하는 롱 재킷 스타일을 시도하였다. 허리선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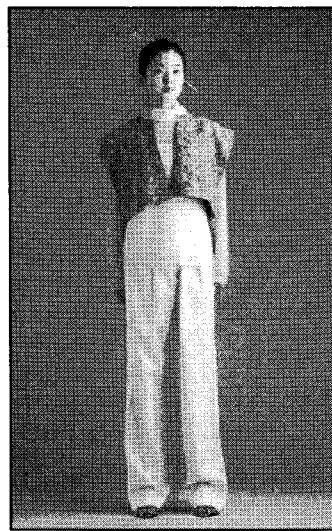
로는 다른 소재가 사용된 독특한 디자인의 현대적 감각이 뛰어난 긴 길이의 배자를 롱 재킷처럼 연출하여 세련된 느낌을 나타냄과 동시에, 여기에 약간의 동화적인 느낌을 가미하여 신비스러운 스타일을 표현하였다(그림 17).

4) 사례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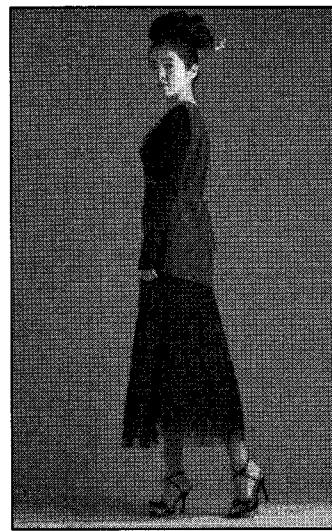
사례 Ⅳ에 사용된 배자는 고려대학교에 소장된 조선 말기 배자 유물을 유선희가 재현한 여자 배자이다. 길이는 37cm, 폼은 45.5cm이며, 자마사에 솜을 두고 2cm 간격으로 누볐다.⁶⁰⁾ 본 배자는 단아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한국적인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다. 온갖 기교를 부려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아닌 누비만으로도 충분히 장식적인 느낌이 표현되었고 이를 통해 한복의 단아한 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례 Ⅳ에서는 2008년에 특히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소재를 겹쳐 착용하는 레이어드 스타일을 시도하였는데, 단아하고 간결한 모시소재의 푸른색 배자에 다양한 소재의 컬러감을 지닌 현대적인 아이템을 코디네이션 하여 완성된 레이어드 룩을 표현하였다. 특히 배자의 자연적인 곡선과 소재의 느낌을 살리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으며, 간혹 단순해 보일 것을 염려하여 장식적인 요소가 있는 한국적인 소품을



〈그림 18〉 사례 IV



〈그림 19〉 사례 V



〈그림 20〉 사례 VI

사용하여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그림 18).

5) 사례 V

사례 V에 사용된 배자는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오녀배자'라 부르는 여자 배당 유물을 복원한 이홍순의 작품으로, 길이 41cm, 폼 51cm이다. 신라의 문자금 느낌을 주는 자카드 직물을 사용하였으며 앞 중심에서 여며 입을 수 있도록 매듭단추를 달았고, 다른 반비에 비하여 길이가 짧으며 목둘레, 쇠선, 도련에 같은 감으로 선을 둘러 정리하였다.⁶¹⁾ 본 배자의 경우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고 한복의 절제된 미가 강조된 간결한 디자인이나, 문자금 느낌을 주는 자카드 소재가 사용되어 단순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장식 없이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례 V에서는 2008년 F/W 시즌에 두드러지게 유행하는 가늘고 긴 스타일을 나타내기 위해,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고 한복의 절제된 미가 강조된 간결한 느낌의 배자를 길이감이 있는 티셔츠 위에 조끼처럼 연출하고, 올 시즌 유행아이템인 통 넓은 와이드 팬츠를 함께 코디네이션 하여 가늘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더욱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에스닉 하면서도 시크한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하였다(그림 19).

6) 사례 VI

사례 VI에 사용된 배자는 18세기 전주이씨 탐릉군변의 누비등걸이를 재현한 유선희의 작품으로 길이 68cm, 폼 47cm이다. 등판이 주체가 되고 등판의 어깨부분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장되어 앞에서 교차시켜 입을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⁶²⁾ 본 배자의 경우 착용방법이 다른 배자와는 다른데, 앞쪽에서 X자 형태로 교차시켜 착용하기 때문에 남성적이고 캐주얼 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진다. 2008년 F/W 시즌에는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하여 중성적인 느낌을 강조한 스타일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례 VI에서는 2008년 F/W 시즌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중성적 느낌이 강조된 스타일을 나타내기 위해, 상의에는 앞쪽에서 X자 형태로 교차시켜 착용하는 남성적이며 캐주얼 한 느낌이 강한 배자와 하의에는 레이스와 시폰 소재로 된 여성적인 느낌이 강한 현대 의상을 코디네이션 하였다(그림 20).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 배자와 현재 일상복으로 착용되는 의상들과의 조합을 통한 배자의 현대화 작

업으로 특별한 날을 위한 예복정도로만 여겨져 왔던 한복이 현대의 서구화된 생활양식과 복식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나 거부감 없이 착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통한 과거와 현재 문화의 융합을 시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전통 배자와 현대의상과의 코디네이션을 통한 현대화 작업을 위하여 2008년 F/W 시즌의 유행경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의 방법으로 코디네이션을 시도하였다.

첫째, 복잡한 장식이 생략되고 의상이 이루는 선과 모양으로 승부하는 미니멀리즘 경향은 직선적 느낌이 강한 심플한 실루엣을 지닌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배자를 민소매 셔츠처럼 연출하고, 스키니 진, 어그 부츠 등의 짧은 세대의 아이템과 코디네이션하여 세련된 미니멀리즘과 짧은 세대의 발랄한 느낌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었다.

둘째, 클래식한 루은 우아한 곡선의 미가 강조된 짧은 길이의 텔배자와 호피무늬 패턴의 티셔츠, 그리고 또 다른 유행 아이템인 배기팬츠와 중절모를 코디네이션 하여 클래식한 분위기와 peplum curve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붉은색의 광택 있는 화려한 느낌의 양단 소재와 텔 소재, 호피무늬 패턴의 조합으로 전체적으로는 클래식 한 느낌을 주면서 은근히 섹시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다.

셋째, 길이가 긴 재킷이 유행하는데, 허리선 아래로는 다른 소재가 사용된 독특한 디자인의 현대적 감각이 매우 뛰어난 긴 길이의 배자를 롱 재킷처럼 연출하고, 코듀로이 소재의 레깅스와 한국적인 느낌의 소품들과 코디네이션 하여 세련되면서도 신비스러운 듯한 느낌을 나타낼 수 있었다.

넷째, 다양한 소재를 겹쳐 착용하는 레이어드 루의 유행이 보이는데, 단아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한복의 소박한 자연의 미가 표현된 모시소재의 푸른색 배자에 다양한 소재의 컬러감을 지닌 현대적인 아이템을 코디네이션 하여 완성된 레이어드 루를 표현할 수 있었다.

다섯째, 가늘고 긴 스타일의 유행경향은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고 한복의 절제된 미가 강조된 간결한 느낌의 배자를 길이가 긴 티셔츠 위에 조끼처럼 연

출하고, 올 시즌 유행아이템인 통 넓은 와이드 팬츠를 함께 코디네이션 하여 가늘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더욱 강조할 수 있었다. 또한 문자금 느낌의 자카드 소재와, 한국적인 소품의 조합으로 에스닉하고 시크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었다.

여섯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한 중성적 느낌이 강조된 스타일의 유행은 앞쪽에서 X자 형태로 교차시켜 착용하는 남성적이며 캐주얼 한 느낌이 강한 배자와, 레이스와 시폰 소재로 된 현대 의상을 코디네이션 하여 보이시 한 여성의 중성적 느낌과 dressy 한 느낌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2008년 F/W 시즌 가장 유행 컬러인 블랙과 블루의 조합을 통해 세련된 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의상인 배자와 현대의상을 조합하는 코디네이션을 통해 전통 배자에 나타난 조형성을 현대적인 감각과 유행 경향에 맞도록 새롭게 해석된 패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이는 한복을 현대 생활에서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한 영역에만 치우치지 않고 서로 다른 영역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즉 복식사의 영역과 코디네이션(디자인)의 영역을 연계한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연구를 시도함이 본 연구의 실질적인 의도이다.

참고문헌

- 1) 이주현, 유혜경, 김찬주, 홍나영 (2001). 현대 한국인의 한복 착용: 아시아 전통문화 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제3보). *한국의류학회지*, 25(1), p. 48.
- 2) 조효숙 (2007). 생활 속의 아름다움 - 우리 옷, 배자 전시회 도록. 재단법인 아름지기, p. 5.
- 3) 위의 책, pp. 14-31.
재단법인 아름지기에서는 2007년 10월 23일부터 2007년 11월 22일까지 열린 '생활 속의 아름다움 - 우리 옷, 배자' 전시회를 위하여 조효숙의 고증 하에 배자 작품을 재현하였다.
- 4) 박두이 (1988). 배자의 양식변천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영 (1997). 배자 고찰을 통한 한, 중, 일 복식문화의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부혜성 (1998). 현대 패션디자인을 위한 배자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오순 (2003). 배자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1). 창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7), pp. 137-149.

- 왕신정 (2007).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를 응용한 현대 배자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5) 한국문화 콘텐츠 컬렉션 고유복식. 자료검색일 2008. 11. 자료출처 <http://cloth1.krpiia.co.kr>
 - 6) 최무장, 임연철 (1992). 고구려벽화고분. 서울: 신서원. p. 41.
 - 7) 김부식. 삼국사기(三國史記). 6권. 신라본기. 색복조(卷六. 新羅本紀. 色服條).
홍덕왕 복식금제(興德王 服飾禁制)에는 복식명과 직물명. 색상에 관한 명칭이 언급되어 있어 그 당시 복식제도를 알 수 있다.
 - 8)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87.
 - 9) 위의 책. p. 87.
 - 10) 옷감 사용에 있어 남자의 경우, 진골 대등은 표의와 동일하였고(眞骨大等, 同 表衣), 5두품은 내의와 동일하며(五頭品, 同 內衣), 4두품에게는 시(絰), 면(綿), 주(紝)의 사용이 허용되었으며(四頭品, 用 繩絲紝). 여자의 경우, 진골 여자는 내의와 동일하며(眞骨女, 同 內衣), 6두품 여자는 계(罽), 수(繡), 라(羅), 세라(總羅)의 사용을 금하였고(六頭品 女, 禁 罷繡羅總羅), 5두품 여자에게는 계(罽), 수(繡), 금(錦), 들꽃무늬를 넣은 라(野草羅), 세라(總羅) 사용을 금했으며(五頭品 女, 禁 罷繡錦野草羅總羅), 4두품 여자는 바지와 동일하였다(四頭品 女, 同 穗).
 - 11) 유희경, 김문자. 앞의 책. p. 89.
 - 12) 김동옥 (1982). 신라통일기의 복식. 한국의 복식.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p. 73-74.
 - 13) 박두이. 앞의 논문. pp. 27-28.
 - 14) 6두품 여자는 모직으로 만든 라(罽羅), 색사로 무늬를 넣은 라(錦羅), 포방라, 들꽃 무늬를 넣은 라(野草羅), 금박, 은박 혹은 금과 은으로 그림을 그린 것(金銀泥)의 사용을 금하였으며(六頭品 女, 禁 罷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5두품 여자는 모직으로 만든 라(罽羅), 금(錦), 들꽃 무늬를 넣은 라(野草羅), 포방라, 금박, 은박 혹은 금과 은으로 그림을 그린 것(金銀泥), 헛힐(夾纈)의 사용을 금하였고(五頭品 女, 禁 罷羅錦野草羅布紡羅金銀泥夾纈). 4두품 여자에게는 능(綾)의 사용이 허용되었다(四頭品 女, 用 綾).
 - 15) 고려사(高麗史). 第72卷, 志 第26, 여복(輿服). 서문(序文).
 - 16) 유희경, 김문자. 앞의 책. pp. 153-154.
 - 17) 김정자 (1996). 韓國 軍服의 變遷史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1.
 - 18) 고려사(高麗史). 第72卷, 志 第26, 여복(輿服), 의위(儀衛).
 - 19) 박두이. 앞의 논문. p. 29.
 - 20) 홍나영 (1999). 후단 방령반비에 관한 고찰. 복식. (44), p. 120.
 - 2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名選 中 민속·복식. 서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 140.
 - 22) 임현주, 조효숙 (2004). 조선시대 16·17세기 출토복식의 직물유형 및 문양에 관한 연구. 복식. 54(8), pp. 119-128.
 - 23) 유희준. 미암일기(眉巖日記).
유희준은 학문이 뛰어난 사대부로서 정5품 홍문관 교리에 제수되어 왕의 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았다. 유희준이 55세가 되는 해인 1567년부터 1577년까지 11년에 걸쳐 거의 매일 같이 쓴 『미암일기(眉巖日記)』에는 매일의 일상사를 기록함은 물론 사대부가에서 통용되는 복식의 명칭과 의차(衣次)도 비교적 자세히 담고 있다. (조효숙 (2003). 파평윤씨 모자미라 출토 직물에 관한 연구. 파평윤씨 모자미라 종합 연구논문집. 고려대학교 박물관. p. 121.)
 - 24) 문화관광부 (2001). 우리옷 이천년. 서울: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1년 조작위원회. pp. 72-73.
 - 25) 조효숙.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 편. 대전: 문화재청. p. 357.
 - 26) 『광해군일기』중 광해군 11년(1619). “예조에서 ‘당상관은 아청색의 무늬가 있는 비단 단령(鵝青有紋匹段團領) 대홍필단 더그레(加文刺)를 입는 것이 전부터 정해진 제도였으니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아뢰었더니 광해군은 이에 대하여 ‘세자의 복색과 당상관의 복색을 같게 할 수는 없으니, 조정의 관원이 대홍 더그레를 입는 것을 금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자 ‘加文刺’는 곧 더그레로, 당시의 반팔 옷인 ‘답호’를 뜻한다. 또한 1623년 『상례언해』에 “답호는 더그레라는 옷으로, 단령이나 심의의 발침옷으로 입는데 『오례의』에 ‘반팔 옷(半臂衣)’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더그레가 답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7) 김미자 (1977). 개화기의 문관복에 대한 연구. 복식. (1), p. 77.
 - 28) 손경자, 김영숙 (1982). 한국복식사자료선집 - 조선편 3. 서울: 교문사. p. 401.
 - 29) 최남선. 조선상식(朝鮮常識). 제4(第4). 전복조(戰服條).
 - 30) 인조실록(仁祖實錄). 2년(二年) 1월조(一月條).
 - 31) 영조실록(英祖實錄). 52년(五十二年) 3월조(三月條).
 - 32)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80. 예고27. 장복2. p. 30.
 - 33) 조효숙 (2006). 앞의 책. p. 141.
 - 34) 위의 책. pp. 298-299.
 - 35) 송문흠. 환경당집(閑靜堂集). 卷七. 雜著.
 - 36) 신윤복. 쌍류삼매(雙六三昧). 혜원전신첩.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135호.
 - 37) 이진영. 앞의 논문. p. 44.
『태종실록』에는 태상왕(太宗)의 승하 시 상정한 여자의 상복으로 왕비와 빈의 것은 대수장삼(大袖長衫)이고 궁주 이하 응주 및 시녀들의 상복은 대(帶)가 있는 배자 착용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세종실록』에는 28년 왕비 상재에 상정된 세자비의 이하의 상복에 배자와 대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 전기의 국가 의례를 범제화 한 『오례의』의 흥례의식에도 배자는 대수 다음가는 상복으로 규정되고 있다.
 - 38) 나라국립박물관 (1988). 제40회 正倉院展 도록.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p. 44.

- 39) 위의 책, p. 44.
해당 도식화는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유물사진과 실
측 크기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 40) 나라국립박물관 (1998). 제50회 正倉院展 도록.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p. 53.
- 41) 위의 책, p. 53.
해당 도식화는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유물사진과 실
측 크기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 42) 위의 책, p. 53.
- 43) 주성희 (1982). 일본 정창원의 「오녀배자」에 관한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8.
- 44)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윤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
도박물관, p. 212.
- 45) 위의 책, p. 212.
해당 도식화는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유물사진과 실
측 크기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 46) 위의 책, p. 152.
- 4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앞의 책, p. 147.
- 48) 위의 책, p. 147.
해당 도식화는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유물사진과 실
측 크기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 49) 위의 책, p. 147.
- 50) 고려대학교박물관 (1990). 仁村金性洙先生 講長100周
年紀念 服飾類名品圖錄. 서울: 고려대학교박물관, p.
59.
- 51) 위의 책, p. 59.
해당 도식화는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유물사진과 실
측 크기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 52) 위의 책, p. 234.
- 53)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서
울: 열화당, p. 249.
- 54) 위의 책, p. 249.
해당 도식화는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유물사진과 실
측 크기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 55) 위의 책, p. 249.
- 56) 조효숙 (2007). 앞의 책, pp. 14-31.
- 57) 위의 책, p. 25.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된 16세기 남성의 배자 유물을
현대 여성 치수에 맞도록 약간의 치수를 조정하여 제
작하였다.
- 58) 위의 책, pp. 16-31.
- 59) 위의 책, pp. 14-15.
- 60) 위의 책, p. 22.
- 61) 위의 책, pp. 16-31.
- 62) 위의 책, p. 23.
18세기의 유물을 기본으로 현대 여성 치수에 맞도록
약간의 치수를 조정하여 제작하였다.